

투표소 운영상황 최종 점검

진안군, 선거일 교통편의제공계획 안내·다양한 홍보수단 활용 투표참여 독려

진안군은 지난 2일 군청 강당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운영 및 유권자 편의 제공 등 선거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이날 전춘성 군수가 주재한 회의에는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 읍면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춘성 군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등 공명선거 추진과 주민불편, 안전사고 없는 투표소 운영, 투표참여 독려 등을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이 사전투표에서 63.1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며 "모든 군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전 마지막 홍보에 총력을 쏟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민 누구나 불편 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13개 투표소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선거일 당일 투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군수는 또한 △마을상생 송출 △교통불편지역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계획 △장애인·임산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 대한 차량제공 계획 등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지시했다.

선거일 교통편의 제공대책은 '공직

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전춘성 군수는 "군민 누구나 소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63.12%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전북 2위, 전국 8위에 이름을 올렸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달 30일 전남 발생한 국지성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신속한 피해조사·복구지원

최훈식 장수군수, 계남면 일대 우박 피해 상황 점검·농민들 위로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달 30일 전남 발생한 국지성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를 긴급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을 위로했다.

이날 피해 현장 방문은 지난 29일 오후 4시경,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장수 일부지역에 1cm 가량의 우박이 비와 함께 약 20분에서 최대 40분간 쏟아져 발생한 농작물 피해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수군은 장계면과 계남면 일대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 지역들은 갑작스러운 우박에 사과 과실에 상처가 생기고 잎이 찢기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최 군수는 직접 피해 현장을 찾아 상처 입은 과일과 떨어진 열매로 뒤덮인 과수원 곳곳을 살피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을 둘러본 최 군수는 "예기치 못한 우박 피해로 상심이 큰 농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장수군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빠른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들이 우박 피해 신고를 못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을 쓸 것,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사후관리 기술지도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군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피해 접수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피해 과원에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 당부 및 기술지도 등 사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진원반딧길마을, 농축산식품부 주관 공모 선정

사업비 3000만원 확보... 마을 특성 담긴 체험 발굴 육성 기대

무주군 안성면 진원반딧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가족, 친구 등 소그룹 단위의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132개 마을 중 40개 마을을 선정해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하게 된 '진원반딧길 농촌체험휴양마을'

은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비롯해 재료 구입과 콘텐츠 개발, 사업사업 운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오는 10일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하는 사업 시행 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까지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운영에 주력한다. 특히 진원마을회관,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등 무주군 대표 유산인 정기용 건축물과 나화놀이 등 마을 주변의 자연·인문 자원을 접목해 진원마을만의 소규모 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상품화할 계획이다.

김완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진원반딧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이번 공모 선정에 계기로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농촌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산골영화제 5일 개최... 손님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무주군은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오는 5일 손님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직원(250여 명)이 등나무동장과 예체문화관 일대 산골영화제 현장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및 하천변 등 2개 구역으로 흩어져 거리에 버려진 담배꽂초와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지역 무주군청 환경과장은 "영화제가 열리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는



무주를 시가지에 쓰레기 긴급수거반을 투입해 무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자연특별시 무주의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제와 더불어 안전하고 특별한 무주 여행도 즐기실 수 있도록 지질명소와 천리길 정비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오는 5일까지 구상화강편마암 천일폭포, 용추폭포, 외구천동지구 등 '지질명소'의 안내표지판과 시설물 훼손 상태 점검 후 조치할 계획이다. 무주를 잠두강에서 서면마을 구간까지의 '천리길' 역시 제조 작업과 시설 정비를 통해 방문객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분해성 필름 보급 시범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폐비닐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및 농촌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2025년 원예작물 노동력 절감 기술(생분해성 필름) 현장적용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7.5ha 규모에서 추진되며, 기존의 일반 밀칭 필름 대신 생분해성 필름을 공급·사용하는 방식이다. 생분해성 필름은 수확 후 별도의 수거·폐기 작업 없이 토양 내에서 자연 분해돼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필름은 환경부 EL724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자재로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 날씨, 토양 수분 등에

따라 평균 6개월 이후 분해가 시작돼 환경오염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진안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 운영과 보급 방향 설정에 참고할 계획이며, 농업현장의 반응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급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생분해성 필름 사용은 농촌의 노동력을 덜고 환경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한글학자 건재 정인승 선생 추모제 거행

장수군은 지난 1일 계북면 정인승 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한글학자인 건재 정인승 선생을 기리는 제39주기 추모제를 엄숙히 거행했다.

이날 추모제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박희승 국회의원, 최한주 군의회 의장 정진현 유족대표,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는 최훈식 군수의 초헌례, 박희승 국회의원의 아헌례, 최한주 의장의 종헌례 순으로 진행되며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건재 정인승 선생은 1897년 계북면 안악리에서 태어나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대한해연회전문화교에서 본격적인 한글 연구를 시작했다. 졸업 후 조선어학회에서 활동 '한글'지의 발행을 주관 우리말 체계화를 위한 핵심 연구에 참여하는 등 우리말 연구와 보급에 일생을 바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11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난달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안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된 제11회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가 성료했다고 밝혔다.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파크골프협회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파크골프 동호인 1,560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예선을 거쳐 남녀 각 160명씩 총 320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남자부에서는 박용철(전북), 여자부에서는 이정애(대전) 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총상금 3,440만원이 걸린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됐고, 출인원 기록자에게는 10만원의 특별상도 수여됐다.

특히 선수들은 대회 전부터 진안을 찾아 연수 리운딩을 하며 관내 숙박시설과 식당을 적극 이용, 대회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지역상품권을 통해 농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도 활기를 띠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